

예 배	일 시	장 소
새벽 기도회	토요일 오전 7시	예배당
주일 예배	주일 오후 1시45분	예배당
중고등부 예배	주일 오후 1시45분	교육관 5번 교실
유초등부 예배	주일 오후 1시 35분	교육관 7번 교실
수요 예배	수요일 오후 7시	Zoom
금요 예배	금요일 오후 8시	Zoom
예배 봉사자 기도회	주일 오후 12시45분	유아실

주일 예배 봉사위원

	06. 20	06. 27	07. 04
대 표 기 도	이수현 집사	김영희 권사	정용현 집사
성 경 봉 독	이수현 집사	김영희 권사	정용현 집사

환영 : 예배를 위해 교회를 방문하신 분들에게 하나님의 평화가 넘치기를 기원합니다.

예배 안내 : YouTube에서 „브레멘 한민교회“ 검색하세요.

교회소식

1. 성경읽기 - 역사서(수~에) 1일 5장 읽기 7월 22일(60일)까지
2. 정기 제직회 - 오후 5시, 줌으로 진행하겠습니다.
3. 새 규칙 - 주일학교 어린이들은 예배당에서 부모님과 함께 예배드릴 수 있습니다.
4. 교회 주변의 안전을 위해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5. 예배당 안에서도 코로나 대응 정부 지침을 지켜주세요(손 소독, 간격 유지, 마스크 착용) 의료용 마스크와 FFP2 마스크만 허용됩니다.

교우동정

생일	김영희 권사(13일)

지난주통계

주일헌금	
십 일 조	
감사헌금	
합계(Euro)	

기도제목

1.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한민공동체
2. 육체적 치료와 영적 회복을 통해 기쁨을 나누는 교회가 되도록
3. 코로나 바이러스영향으로 영육이 위축되지 않도록
4. 김선택 협력선교사(주 헝가리)의 사역을 위하여

브레멘 한민교회

Bremen Han-Min Reformierte Kirchengemeinde

“하나님을 맛보아 알라(벧전2:3)”



믿음의 부요를 보이고
소망의 기쁨을 나누며
사랑의 배려를 나타내는 교회

담임목사 이 상 호 (Sang Ho Rhee)
예배반주 이 세 현
교회 : Anna-Stiegler-Str. 124 28277 Bremen
전차 (Tram) 4번 / 버스 (Bus) 22, 29, 51, 52번
정거장(H) : Kattenturm-Mitte



<http://www.brehanmin.de>

주일 예배 Gottesdienst

- 송 영 Chor 반주자
 기 원 Altargebet 이상호 목사
 * 신앙고백 Glaubensbekenntnis 사도신경 (새번역) 다같이
 * 찬 송 Gemeindelied 212장 다같이
 기 도 Gebet 김남희 집사
 성경봉독 Predigttext 삼상 23 : 8 - 12(구p448)..... 김남희 집사
 (1.Samuel 23:8~12)
 설 교 Predigt 꿈보다 해몽이 좋다! 이상호 목사
 * 찬 송 Gemeindelied 216장 다같이
 헌 금 Gemeindelied zur Kollekte 이상호 목사
 교회소식 Information & Begrüßung (새 가족 환영)..... 이상호 목사
 축 도 Segnungsgebet 이상호 목사
 송 영 Chor 반주자

* 표지는 목상으로 대신 합니다.

† 헌금은 예배 전 입구에서 봉헌해 주세요.

† 다음 주일 기도 담당 : 이수현 집사

내 소망의 근거

우리는 어디에 소망을 두고 있을까요? 몸이 아파 찾아간 병원에서 의사의 진단이 내려지고 그 결과가 결코 좋지 않을 때 우리는 예수님과 바울의 삶의 고통 속에서 인내를 배웠던 여러 신앙의 위인들이 걸어갔던 길을 걸을 수 있나요? 아니면 고통을 싫어하고 불평에만 매달릴 것인가요? 치유를 위해 기도하는 것은 정당합니다. 그렇게 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성숙하게 하려고 고난의 시기를 허락하시기로 했다면 어떻게 하실 것인가요?

이 타락한 세상의 거짓이 우리의 삶을 파고들 때-그것은 고약한 폭풍우나 음주 운전, 무서운 사고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역경 너머에 있는 영광을 추구할 것인가요? 아니면 슬픔에 파묻혀 버리고 말 것인가요? 슬픔은 극히 정당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소망 없는 사람들처럼 슬퍼해서는 안 됩니다.

죄에 대한 저항이 고통스러워질 때-솔직히 술을 마시지 않고는, 그 사람 없이는, 옛 습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고 생각될 때-우리는 그 고난을 받아들이고 영적 고뇌를 견디면서 하나님께 신실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또 다시 중독이라는 달콤한 감옥 안으로 무너지고 말겠습니까? 당신의 성숙을 가장 효과적으로 도와주는 고통을 쉽게 거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상 주시는 믿음 / Gary Thomas 목사
 (미국 Houston 신학대학원 교수)

* 불확실한 미래를 확실한 하나님께 맡기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 Corrie Ten Boom 여사 (네덜란드, 1978년 사망) -